

□ 관련 보도자료

아시아경제

2013. 7. 1.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립

구의동 30-9 일대 지하 1, 지상 2층 총 104면 규모 주차공간으로 올 연말까지 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그 동안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 8월 착공해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 1, 지상2층 총 104면 규모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진구 구의2동 공동주차장 조감도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구는 자양4동 9-4 행복주차장이 성동교육지원청의 토지 환매 조치로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자양4동 5-5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전통시장의 기존 주차장 확대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연합뉴스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서울=연합뉴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연말까지 건립한다.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동주차장은 1천170.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총 104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유료로 개방된다.

2013/07/01

서울신문 7.2.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하기로

광진구는 오는 12월 구의2동 30-9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조감도)을 건립한다고 1일 밝혔다.

구의동 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과 인근 지역 및 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탓에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 보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차장은 부지 1170.6㎡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04면 규모다. 특히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 주민 편의와 안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 마감재를 사용한다. 김형기 교통지도과장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7.1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그 동안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자양4동 9-4번지 행복주차장이 성동교육지원청의 토지 환매 조치로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자양4동 5-5번지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전통시장의 기존 주차장 확대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록 일시 [2013-07-01 11:26:05]

【서울=뉴시스】강영은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한다.

구는 현재 구의2동 30의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건립되는 공동주차장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된다.

또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가 사용된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yoabc@newsis.com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 올해 말 완공

입력시간 : 2013. 07.02. 11:15

광진구가 구의동 주변 주차난 극복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현재 구는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자양4동 9-4번지 행복주차장이 성동교육지원청의 토지 환매 조치로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자양4동 5-5번지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전통시장의 기존 주차장 확대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송준길기자 wooriilbo@wooriilbo.com

구의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립

2013-07-01 오후 1:37:29 게재

서울 광진구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위해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 총 104면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 규모로 지하1층·지상2층 규모다.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과 안전보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주차장 준공 뒤 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2013년 07월 01일 (월) 13:34:50 이승욱 기자 kuroop@naver.com 업코리아



▲ 주차장 조감도 ©업코리아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그 동안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자양4동 9-4번지 행복주차장이 성동교육지원청의 토지 환매 조치로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자양4동 5-5번지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전통시장의 기존 주차장 확대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일보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12월 완공 -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

2013. 07.01(월) 17:33

광진구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그 동안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호기자 giho@sudokwon.com

서울경제

2013.07.01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립

서울시 광진구는 올해 말까지 구의2동 주택가에 지하1층, 지상2층 총 104대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만든다. 구는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공동주차장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건물 외관을 적벽돌 디자인으로 꾸미고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완공된 주차장은 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며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한다.

구는 자양4동과 중곡제일전통시장에도 각각 주차장을 신축, 확대할 계획이다

광진, 주차난 해소 마을공동체에서 찾는다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승인 2013.07.01 14:13:21



▲ 구의2동 주택가에 들어서는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 조감도.

[일간투데이 전승원 기자] 광진구가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의2동 주택가에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건립한다.

그 동안 구의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지역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구의2동 30-9호 외 6필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잔여건물을 철거하고 8월 착공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건립될 공동주차장은 구의동 30-9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6㎡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1층/지상2층 총 104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차장은 주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건물 외관 벽면을 적벽돌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구민의 편의와 안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인접 주택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유리마감재를 사용한다.

구는 주차장 준공 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를 위탁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자양4동 9-4번지 행복주차장이 성동교육지원청의 토지 환매 조치로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자양4동 5-5번지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곡제일전통시장의 기존 주차장 확대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광진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